

고바야시 다키지의 문학에 나타난 마이노리티의 양상*

- 경계인으로서의 조선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

김대양**
daeyang76@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작품 속 경계인으로서의 조선인 노동자 |
| 2.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渡日) 성격과 훗카이도 | 4. 나오며 |

主題語: 고바야시 다키지(Kobayashi Takiji), 조선인 노동자(Choseon laborer), 타자성(otherness), 경계인(the marginal man), 마이노리티(minority)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 1903~1933 이하 다키지)의 문학에 나타난 경계인으로서의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이다. 다키지의 문학에는 마이노리티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일본에서 차별받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종종 등장한다. 그 모습은 일본인과 동화될 수 없는 경계의 대상으로서,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계인으로 나타난다. 다키지의 문학에 반영된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고향을 떠나 일본 내지에서 살아가는 조선인 노동자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본인과 일본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타자임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와 같은 형태로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헤이트 스피치는 말 그대로 ‘증오 발언’으로 그 자체가 폭력이며 의도적으로 폄하, 위협, 차별을 선동하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키지의 작품 중 조선인 노동자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히가시굿찬 행(東俱知安行)』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7724)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1928), 『게 가공선(蟹工船)』(1929), 『공장세포(工場細胞)』(1930), 『전형기 사람들(轉形期の人々)』(1931) 등이 있다. 이런 조선인 노동자를 다룬 다키지의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현실과 사회상뿐만 아니라 7조선인 노동자가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았고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다키지의 문학에 나타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아직 단편적으로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키지의 문학에 나타난 조선인 노동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한국에서의 연구로는 김대양의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 가공선(蟹工船)』 고찰」(『일어일문학회 76』, 2017)과 황봉모의 「고바야시 다키지 『전형기의 사람들(轉形期の人々)』의 조선인」(『인문학 연구 31』, 2019)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도 한 작품에만 한정되어 분석한 것으로 다키지의 문학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않았다. 단순히 역사적 형성과 변형 과정에 있어서 지배와 폭력이라는 인식을 넘어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김대양의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 가공선』 고찰」은 다키지의 『게 가공선』에 나타난 1920년대 일본의 노동조합 결성과 마이너리티 노동자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작품이 발표된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강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국내 식민지화된 하코다테 출신 소년노동자들은 이중으로 박해받는 전형적인 마이너리티 노동자였다. 이들은 마이너리티 속의 마이너리티로서 이중으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집단 구성체 안에 매몰시켜 개개인의 상황이나 정체성을 무시하고 왜곡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황봉모의 「고바야시 다키지 『전형기의 사람들』의 조선인」은 『전형기의 사람들』에서 묘사된 오타루 상업고등학교의 군사교련 반대 운동과 실제로 전개된 오타루 고상의 군사교련 반대 운동의 흐름을 살펴봤다. 그리고 일본 노동 현장에서 쥔 임금 때문에 차별을 받는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관계에 대해 고찰했다. 다키지는 궁극적으로 『전형기의 사람들』에서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가 연대하는 과정을 그리려 했다고 분석했다.

다키지와 관련한 일본에서의 연구는 작가로서 다키지나 그의 작품, 노동운동과 시대정신 등에 관한 연구와 저서가 대부분이다. 다키지의 문학에 나타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일본의 연구로는 이마니시 하지메(今西一)의 『『게 가공선』과 마이너리티(『蟹工船』とマイノリティ)』(『多喜二の文学, 世界へ』, 2013)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게 가공선』을 다키지가 목표로 한 ‘전체소설(全體小説)’로서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약자나 마이너리티 문제와 연결해 고바야시 문학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이누족의 생활과 차별, 국내 식민지로서 홋카이도, 사할린, 류큐 등을 당시 식민지(조선, 대만)와 비교하며 식민지성(殖民地性)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1932년 소련의 ‘게 가공선’에서 일본인 노동자의 쟁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키지의 문학에 나타난 조선인 노동자의 전체적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한 폭력성을 반영한 다키지의 문학에서 일본제국의 사회상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제국에 있어서 피지배자의 존재가 갖는 영향과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되는지 그 실체적 의미에 접근한다.

2.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渡日) 성격과 홋카이도

우선 조선인 노동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조선인이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계기는 1910년 강제병합으로 식민지가 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유학생, 계절 노동자, 제주 해녀 등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일은 있었으나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강제병합 이후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실시로 인해 조선 농민들은 생계기반이 파괴되었고, 사회적·경제적 원인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도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 시기 일본제국은 부족한 국내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식민지의 저임금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았다.

1920년대 들어와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본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더욱 곤란해진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더욱 심각해진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19년 4월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령 제3호 ‘조선인 여행 단속에 관한 건(朝鮮人旅行取締ニ關スル件)’에 의해 일본으로의 이민이 제한되었던 것을 1922년 12월에는 폐지되고 조선인의 자유 도항을 허용하게 된다. 하지만, 자유 도항 명목하에 시작된 조선인 강제 연행은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했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 시켰다. 이것은 공황의 피해를 값싼 조선인 노동력으로 대신하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조선인의 자유 도항 허용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했던 일본 산업은 더 쉽게 조선인 노동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은 철도, 도로 등에서 일하는 토목 인부와 일용 인부뿐만 아니라 군수공장, 석탄 광산, 항만 운수 작업장, 제철소, 군 공사장과 같은 노동의 강도나 환경, 조건

등이 전체적으로 취약한 곳에 배치되었다.

일본의 국내 식민지로 불리는 홋카이도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¹⁾ 홋카이도는 유바리(夕張) 탄광, 비바이(美唄) 탄광, 가야누마(茅沼) 탄광, 고노마이(鴻之舞) 광산 등 일본 전체 석탄 매장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그만큼 조선인 노동자 강제 동원 기업만 해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다음은 홋카이도의 노동자 합숙소로 강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 김선영 씨의 증언이다.

2년 동안 일본에서 일하면 2천 엔 정도 저금할 수 있다는 철도 공업주식회사의 핏에 넘어간 것이었다. 연행되어서야 비로소 탄광에서 일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행을 에워싸고 있는 경관들에게 항의했지만, 결국 구타당하고 탄광에서 일하게 되었다. (중략) 아침 4시에 기상해서 5시 반에 갥에 들어가면 저녁 7, 8시에나 겨우 숙소로 돌아와 9시경에 취침에 들어가는데, 방에 들어가면 자물쇠를 채웠다. 외출은 일절 금지하며 마치 교도소 같았다. (중략) 일당은 고향에서는 5엔이라고 들었는데 실재는 3엔이었다. 대용 작업화, 짚신, 이불, 식비 대금 등을 제하면 월말에 1~2엔을 받는 것이 고작이고, 도리어 빚을 지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신발이 없어 대용 작업화 위에 짚신을 신었는데, 하루 정도밖에 못 가고 맨발로 일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식사는 소금국에 콩밥 한 공기뿐이었고,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을 아침에 먹어 버려 점심은 건너뛰었다.²⁾

위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열악했고 감시도 삼엄해 탈출은 불가능했다. 외지인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규제했던 일본제국이 내지인만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조선인들까지 동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강제성이나 폭력성, 열악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내지인과의 차별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의 문제를 간과했고 오히려 조선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을 당연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강제노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런 식민지 시기 일본 사회에 만연했던 조선인들의 차별과 멸시, 혐오는 낙후된 식민지와 대비되는 근대화된 제국 일본의 우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에는 조선인 노동자를 이질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타자화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제국주의 세력의 착취 대상이자 소유물로 인식하였음을 명백하게 보여

1)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이 끌려갔던 홋카이도 지방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현재도 이때 죽어 아무렇게나 방치된 시신의 유골 발굴 작업과 송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한 탄광의 벽에 적힌 ‘어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쓰인 한글 문구는 어두컴컴한 탄광 안에서 죽음에 이르는 열악한 노동을 강요받던 조선인 노동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준식(2014)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 역사비평사, p.135)

2) 박경식(2008)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 고즈원, pp.110-111

주고 있다.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 연행은 석탄 산업을 비롯해 여러 산업에서 자행되었다. 「홋카이도 지역의 조선인 강제 연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홋카이도에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 총수를 일본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4만 5천 명이라고 추정하고, 가혹 노동 또는 중노동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 수가 2천 명 이상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산출해 냈다. 이는 ‘강제 연행’ 도중에 도망하거나 사고로 사망한 조선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홋카이도 지역에 강제 연행당한 조선인 노동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³⁾ 특히 다키지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오타루에도 강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다음은 홋카이도의 오타루로 강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증언이다.

당시, 오타루는 하코다테와 함께 ‘게 가공선’의 기지였다. 고바야시 다키지는 그의 저서 『게 가공선』에서 선내(船内)의 노동이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고 과혹(過酷)한 것인지, 그 ‘다코베야(タコ部屋)’ 노동의 실태를 묘사하고, 변방에서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착취와 숨겨진 침략의 의도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있다. (중략) 그 ‘게 가공선’에는 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혹사당했다. 그리고 ‘게 가공선’ 내의 조선인 노동자 안에서는 도망치기 위한 ‘비밀의 암호’가 존재했다.⁴⁾

위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홋카이도의 오타루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심한 학대를 받고, 사고 발생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목숨을 잃어도 유골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곳 중 하나이다. 그리고 위의 증언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코베야의 노동은 메이지 시대에 홋카이도를 개척할 당시 죄수들을 동원했던 방식이다. 다코베야는 홋카이도, 도호쿠(東北) 지방, 가라후토(樺太) 등에 상당히 많이 있었고 조선으로부터 새로 건너온 조선인 노동자가 많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노동 현장을 탈출하거나, 일을 잘못하는 노동자가 대부분 생활했는데, ‘다코베야’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어를 잡을 때 쓰는 항아리처럼 이곳에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다. 가장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한 것이다.

구라타 미노루(倉田稔)의 「쇼와 초기의 고바야시 다키지(昭和の初めの小林多喜二)」에 의하면 “당시 오타루시(小樽市)에는 다코베야와 같은 감옥방이 많이 있었다. 오타루 항만 확장, 건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명석이 깔린 작은 감옥 방에서 생활했다. 그곳에서 노동자들은 추운 겨울에도 상반신을 벗고 화차로 흠을 날랐다. 실수하면 삼으로 맞았다. 아침은 된장국

3) 박맹수(2003)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의 ‘朝鮮人’ 強制連行 資料에 對하여」 『한일민족문제연구』4집, 한일민족문제학회, pp.15-22

4) 琴秉洞(2010) 「『蟹工船』には多くの朝鮮労働者が濫使されていた」 朝鮮日報, 2010.1.22

과 단무지만으로 식사를 했고,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 채로 먹게 했다. 여기에는 조선인이 많이 있었다. 오타루의 마을은 감옥 방 혹은 다코베야의 노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⁵⁾ 이처럼 일본과 자본은 다코베야를 노동자 임금 착취, 노동 착취, 집단 감금 및 폭행 등 노동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활용한 것이다. 결국, 조선인 노동자를 상대로 잔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다코베야에서 지배·혹사하는 착취의 자유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3. 작품 속 경계인으로서의 조선인 노동자

다키지가 문학 활동을 한 1920~1930년대 초 일본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혁명이 격렬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 일본 사회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마이너리티로 분류되는 일본인 노동자들에게도 조선인과 조선인 노동자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일본인 노동자들은 자신이 타인(조선인 노동자)의 위치를 빼앗을 가능성도, 자신의 위치가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위치 관계에서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위기감으로 인해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는 같은 노동자로서 일체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서로 ‘적(敵)’⁶⁾의 관계에 놓인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계하고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하는 일본인 노동자의 시선에서 조선인 노동자는 내지인과 동화될 수 없는 존재, 기피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에 조선과 일본의 무산자 계급의 처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피식민 상태에 놓여있는 민족적인 문제와 일제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이중의 억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제국 안에 존재하면서 외부로 인식되기도 하는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들에게는 내지인이 아닌 주변부이자 외지에서 온 타자로서 배제, 배척의 대상이었다.

다키지는 이런 역사의 사실적인 면을 감추지 않고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민족 차별과 편견 등의 이중적인 시선으로 조선인 노동자를 대하는 현실이야말로 다키지의 문학 활동에 커다란 자극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다키지는 학생 시절부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자신이 살던 집 근처인 오타루의 항만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혹사당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5) 倉田 稔(1997) 「昭和の初め的小林多喜二」『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第93輯, 小樽商科大学, pp.71-87

6) 다음은 『히가시국찬 행』의 일부분이다. “임금이 일본인 노동자보다도 싸기 때문에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는 조선인에게 단결의 손을 내미는 대신에 <적(敵)>으로까지 생각한다. 미국의 노동자와 일본의 이민(移民)처럼” (『히가시국찬 행』3장 p.221)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그럼 다키지의 작품 속에 조선인 노동자가 어떻게 가시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소설 『게 가공선』의 일부분이다.

모든 노동자는 아침에 어두컴컴할 때부터 일터로 내몰렸다. 그리고 곡괭이 끝이 힐끗힐끗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주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했다. 오히려 근처에 있는 감옥에서 일하는 죄수들을 모두가 부러워했다. 특히 조선인은 우두머리, 십장들에게도, 같은 동료 노동자(일본인)들에게도, ‘짓밟히는’ 대우를 받았다. (『게 가공선』 4장, p.307)

위의 인용문을 통해 일본제국에서 식민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해상노동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처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비참한 지경에 빠져들게 된다. 같은 마이너리티 노동자 속에서도 단지 식민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불평은커녕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런 모든 상황을 다키지는 확실히 인지하고 문제의 중요성을 감지하여 노동자 속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을 대비시켜 일본인 노동자 안의 조선인 노동자의 타자성을 고발하고 있다.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특수한 위치에서 자신의 삶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계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들과 완전히 동화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삶과 노동의 공간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피지배자로서 일본제국 안에 있던 많은 조선인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은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강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전형기의 사람들』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공간 풍경이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비탈길로 되어 있는 거리를 세 골목 정도 올라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조선인들만 사는 구역이었다. 그곳에 사는 조선인들은 일용직이나 막노동꾼, 하역 인부들이었다. 집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고 골목 전체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다. 아이들은 길가 땅바닥에 그대로 눌러앉아 놀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놀다 말고 뒤에서 줄줄 쫓아왔다. 불그스름한 수염이 난 덩치 큰 남자가 집 앞 평상 위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자고 있었다. 이 주변에서는 종종 싸움이 일어났다. 서로 패를 나눠 치고받았다. (『전형기의 사람들』 1장, p.13)

당시 일본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까지는 전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은 일제의 경제적 침투로 자신들의 생존기반을 잠식당하고 경제

상황도 점점 악화하여 생계기반을 타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통치라는 일제의 목적을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상황에서 많은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가난과 약탈로 살 수 없었던 고향을 저버리고 살기 위해 건너가 마주한 일본에서의 강한 현실감과 차별의 무게는 일상 곳곳에 존재했다. 고향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상의 일본 생활은 처참했고 오히려 고향에 있을 때보다 더 가난하고 고된 삶의 연속이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인 거주 지역에서 집을 빌리는 것조차 어려웠어서 자연스럽게 조선인들끼리 모여 사는 집단 지구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작품에서 조선인들이 사는 악취가 축적된 공간은 마치 돼지우리를 연상시키는 풍경으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집들이 황폐한 모습인 이곳에서 벌어지는 반복되는 ‘싸움’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선인들의 힘겹고 고단한 삶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다키지는 차별로 밑바닥 수준의 삶이 일상화된 조선인들의 암울한 현실을 문제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음은 『히가시구찬 행』에서의 조선인 노동자의 풍경이다.

우리가 타고 있는 같은 칸 반대편 끝 편에 20명 정도의 조선인이 타고 있었다. 홋카이도 오지의 탄광인지 토목 방(감옥 방)에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지저분하게 자란 ‘아래로 처진 수염’을 기른, 옅은 눈썹과 눈썹 사이가 먼 조선인이 끊임없이 빠른 말투로 말하고 있었다. 내가 화장실 갈 때 그 옆을 지나갔다. 중국 비단의 하얀색이 더러워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스팀에 찌져서, 그것이 더욱 심한 악취가 되어 가득 찼다.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 홋카이도의 대부분 어느 기차 안에서 우리는 10~20명 정도의 조선인을 볼 수 있었다. 프롤레타리아는 고향이 없다. 그 표본이 조선인이었다. (『히가시구찬 행』 3장, p.221)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인 노동자들은 거주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행위에서도 외부인(=조선인)을 향한 내부인(=일본인)의 차별된 시선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내부인의 감각을 통해 ‘고약한 냄새’, ‘심한 악취’로 상징되고, 기피의 대상이 되는 부정적인 외부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드러냄으로써, 지배자의 우월의식을 표출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중의 식민지성 구조에서 조선인의 발견이며, 그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는 거부당한 존재로 위치하고 지배자의 부정적 시선과 편견을 내면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전형기의 사람들』에서 이와키 빌딩에 사는 조선인 노동자의 풍경이다.

구두 수선공은 이와키 빌딩의 모든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비굴하게 인사를 했지만, 조선인을 만나면 확 하고(나는 이런 행동에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으쓱하며 지나쳐 버렸다. 관리인도 조선인 가족에게만은 2층 구석방 이외에는 빌려주지 않았다. 독신자 이(李) 씨라는 아무리 봐도 일본인과 다를 바 없는 몸집이 작은 남자와 그 외에 가족이 있는 홍(洪) 씨라는 마흔 살 가까운, 언제나 얇은 수염을 기르고 입술을 반쯤 벌리고 있는 사람, 유바리(夕張) 탄광⁷⁾에서 7년이나 광부를 했고 항상 감기에 걸린 듯한 누렇게 부은 얼굴에 눈은 어딘가 무서운 데가 있는 양(陽) 씨라는 사람뿐이었다. 이와키빌딩에는 매일같이 지저분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쾅거루처럼 아이를 등에 업은 마누라를 데리고 온 조선인이 방을 빌리러 왔다. 방이 비어있을 때도 방이 없다고 “방이 꼭 찼다.”고 말하며 돌려보냈다. 몹시 추워 보이는 조선인은 몇 번이나 거절당해도 집 안을 힐끗 엿보거나 가끔은 모르는 말을 중얼중얼하며 좀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전형기의 사람들』 4장, pp.63-64)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의 삶은 어디에서나 경시당하고 거부당하는 존재였다. 작품에서 이와키(岩城) 빌딩이라고 불리는 저렴한 아파트는 그 지역에서도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선인 노동자들은 이곳에서조차도 집을 빌리기가 어려웠고, 설령 빌린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격리되어 생활해야만 했다. 이준식의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에 의하면 “조선인 노동자는 같은 직종의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았다. 심지어 집을 구하지 못해 일본인들이 살지 않는 불량주택, 가건물, 축사, 전염병 환자 수용시설 등의 열악한 공간에 모여 살았다. 부락민 거주 지역에 섞여 살면서 일본의 최하층 신분인 부락민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다. 다행히 집을 구하더라도 일본인보다 많은 보증인과 보증금이 필요했고, 집주인의 횡포와 그로 인한 차가(借家) 쟁의가 잇달았다.”⁸⁾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질적인 공간에서 거부당하는 조선인들은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 취급당하며 일본인과 전혀 동화될 수 없는 배척된 경계인으로 나타난다. 작품에서는 이 씨, 홍 씨, 양 씨가 그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오갈 데 없이 추위에 떨며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조선인 가족을 외면한 채 돌려보내는 비인간성을 드러냄으로써 피지배자에게 무감각해진, 인간성을 상실한 지배자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를 통해 인식되는 조선인 노동자는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거부된 상징적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배자가 피지배자인 타자를 정형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등식은 일본 노동조합에 합류한 노동자들의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7)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 탄광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많이 있었다. 1937년 8월 10일 유바리 광업소 가쿠타(角田) 탄광 제2 갱의 가스폭발로 사망자가 27명을 냈는데, 그중 24명이 조선인이었다. (박경석(2008)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 고즈원, p.93)

8) 이준식(2014)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 역사비평사, p.130

다음은 『전형기의 사람들』과 『공장 세포』의 일부분이다.

“항구에서 일하는 일본인 합동 노동자들이 조선인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조합에 호소하러 온다고 해. 현장감독은 또 그걸 구실 삼아 너희들이 조합을 나가면 조선인을 해고하고 대신 써주겠다고 계락을 짜고 있는 것 같아.” (『전형기의 사람들』 4장, p.65)

항구 화물 하역이나 막노동판에서도 일본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싸고 게다가 몇 시간이라도 일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신나서 조선인을 썼다. 그래서 일본인 노동자들과 사이가 나빴다. (『전형기의 사람들』 1장, pp.13-14)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일본 노동조합에 합류한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거나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을 조금은 품고 합류한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일본제국과 자본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조선인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아 일본인 노동자들이 조합에 들어가는 것까지 막으려 했다. 일자리 자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본인 노동자들은 당연히 저임금의 조선인 노동자들과 경쟁해야만 했고 ‘적(敵)’으로까지 인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연대와 단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일본제국과 자본은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 벌금, 폭력 등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이었던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피지배자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조선인 노동자와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일본인 노동자를 주종 관계에 놓고 민족적 차별 인식을 더욱 심화시켜 피지배자에 대한 배타성을 증폭시켰다. 박경식의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에 의하면 “1925년 10월에는 실업 문제 대책과 일본인 노동자의 압박 등을 이유로 ‘도항 저지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법령은 일본에서 노동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선인과 일본인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인 노동자의 실업 원인이 조선인의 도항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민족 배타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아베 이소오(阿部磯雄)는 “사실 조선인 노동자의 홍수 같은 잠입은 본토 노동자에게 일대 위협이며, 실업 불안을 점점 커지게 그냥 놔둘 수 없다.”(『실업 문제』, 1926)라고 폭언을 했지만, 오사카시 사회부에서 발행한 『조선인 노동자 문제』(1924)에는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 편견을 부추기는 심리적인 문제다.”라고 그 본질을 폭로했다.”⁹⁾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사회문제나 내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되는 건 언제나 조선인들이었고, 조선인은 인질이 되어 문제가 해결되면 가차 없이 버려지는 존재였다.¹⁰⁾ 결국,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의 관계에서

9) 박경식(2008)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고즈원, p.28

동화와 배제의 이중성, 강제와 차별도 함께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공장 세포』의 일부분이다.

Y시는 항구라는 관계상, 해륙을 연결하는 운수 노동자, 부두에서 일하는 잡부, 하역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선인이 그중 3할을 차지한다. 그래서 ‘노동자’라고 말하면, Y에서는 그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대부분 반(半) 자유 노동자이기 때문에 모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HS 공장’ 직공은 그래서 자기들이 ‘노동자’로 불리는 것을 싫어했다. - ‘HS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근방에서 하나의 ‘자랑’까지 되었다. (『공장 세포』 上 2장, p.80.)

위의 인용문에서는 노동자를 두 부류로 나누고,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를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규정하여 서로 다른 존재임을 고착화한다. 노동자 중에서도 반 자유 노동자였던 피지배자 조선인은 ‘노동자’로, 지배자인 일본인은 ‘직공’으로 불리며, 일본인 노동자의 민족적 우월성을 과시하며 민족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인 노동자는 조선인 노동자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민족 차별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타자를 인식하는 데 있어 폭력성을 말하는 것이다. 또 자본가와 노동자의 문제를 식민지적 민족 차별로 연결하여 이질화시킴으로써, 조선인 노동자들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특수한 위치에서 본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본인 노동자들과 완전히 동화될 수 없는 경계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다키지의 문학에는 당시 일본의 현실과 사회상 그리고 조선인과 조선인 노동자,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사실과 체험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4. 나오며

지금까지 고바야시 다키지의 문학에 나타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키지의 문학에는 식민지 시기 일본에서 그 존재조차 부정되고 타자로서 소외되어 온 차별적, 이중적

10) 대표적으로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근현대 일본에서 사상 최대의 자연재해인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을 들 수 있다. 이때 희생된 조선인 수는 약 6천 명 이상으로 일본 자경단과 군대, 경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했다. 이렇게 사회적 폭력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은 관동대지진의 재앙으로 인하여 일본은 궤멸적인 피해를 보았고, 치안도 무너져 민심과 사회질서가 대단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정부가 혼란 수습과 사회질서 회복의 명분으로 정치적 조작의 대상으로서 조선인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자행된 집단적인 대학살에서 지배자의 음모와 잔학성을 알 수 있다.

위치에서의 조선인 노동자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모습은 일본인과 동화될 수 없는 경계의 대상으로서,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계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조선인 노동자의 도일 과정과 그 성격, 노동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유 도항 명목하에 시작된 조선인 강제 연행은 일본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했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폭력성, 열악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내지인과의 차별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고 약자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강제노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중에서 다코베야의 노동은 노동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었는데, 특히 조선인 노동자를 상대로 잔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다코베야에서 지배·혹사하는 착취의 자유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식민지 시기 일본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조선인들의 차별과 멸시, 혐오는 낙후된 식민지와 대비되는 근대화된 제국 일본의 우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조선인 노동자를 이질적인 존재로 부각해 타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제국주의 세력의 착취 대상이자 소유물로 인식하였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다키지는 작품에서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를 대비시켜 조선인 노동자의 타자성을 고발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까지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건너가 마주한 일본에서의 강한 현실감과 차별의 무게는 일상 곳곳에 존재했다. 피지배자에게 무감각해진, 인간성을 상실한 지배자의 모습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거주공간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행위에서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중의 식민지성 구조에서 조선인의 발견이며, 그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는 거부당한 존재로 위치하고 지배자의 부정적 시선과 편견을 내면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화자를 통해 인식되는 조선인 노동자는 거부된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고 식민지 통치하에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의 식민지적 관계에서도 동화와 배제의 이중성, 지배자의 강제와 피지배자의 동의라는 이중성도 함께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결국, 당시 조선은 특수한 역사적 공간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일본의 어려운 환경에서 신음하며 견뎌야만 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낯선 땅에서 주변인, 경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식민지적 민족 차별로 연결하여 이질화시킴으로써 이중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조선인 노동자의 현실을 형상화한 다키지의 문학 공간을 통해 타자로서의 조선인 노동자를 확인했다.

【참고문헌】

- 小林多喜二(1992) 『東俱知安行』『小林多喜二全集 二卷』新日本出版社, p.221
_____ (1992) 『蟹工船』『小林多喜二全集 二卷』新日本出版社, p.307
_____ (1992) 『工場細胞』『小林多喜二全集 四卷』新日本出版社, p.80
_____ (1992) 『転形期の人々』『小林多喜二全集 四卷』新日本出版社, pp.13-14, pp.63-65
倉田 稔(1997) 「昭和の初めの小林多喜二」『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第93輯, 小樽商科大学, pp.71-87
今西一(2013) 「『蟹工船』とマイノリティ」『多喜二の文学, 世界へー』
琴乗洞(2010) 「『蟹工船』には多くの朝鮮労働者が酷使されていた」朝鮮日報, 2010.1.22.
박정식(2008)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고즈윈, p.28, p.93, pp.110-111
박맹수(2003)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의 ‘朝鮮人’ 強制連行 資料에 對하여」『한일민족문제연구』4집, 한일민족
문제학회, pp.15-22
이준식(2014)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역사비평사, pp.127-135
황봉모(2019) 「고바야시 다키지 『전형기의 사람들(転形期の人々)』의 조선인」『인문학연구』31

논문투고일 : 2021년 11월 30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2년 02월 04일
2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22일

 <要旨>

고바야시 다키지의 문학에 나타난 마이너리티의 양상

- 경계인으로서의 조선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

김대양

본고는 고바야시 다키지의 문학에 나타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이다. 식민지 시기 일본에서 그 존재조차 부정되고 타자로서 소외되어 온 차별적, 이중적 위치에서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인과 동화될 수 없는 경계의 대상으로서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계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제국은 조선인 노동자를 상대로 잔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노동환경에서 지배·혹사하는 착취의 자유를 확보했다. 이처럼 조선인 노동자를 이질적인 존재로 부각해 타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제국주의 세력의 착취 대상이자 소유물로 인식하였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키지는 작품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노동자를 대비시켜 조선인 노동자의 타자성을 고발하고 있다. 화자를 통해 그려지는 조선인 노동자는 거부된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고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의 관계에서도 동화와 배제의 이중성, 지배자의 강제와 피지배자의 동의라는 이중성도 함께 존재한다. 결국, 조선인 노동자들을 식민지적 민족 차별로 연결하여 이질화시킴으로써 이중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조선인 노동자의 현실을 형상화한 다키지의 문학 공간을 통해 타자로서의 조선인 노동자를 확인했다.

The representation of the minority in the literature of Kobayashi Takiji

- Centering on Choseon laborers as marginal men -

Kim, Dae-Yang

This research is on Korean laborers portrayed in Takiji Kobayashi's literary works.

Korean laborers were portrayed as marginalized people not being able to be part of any groups during the colonial era when Koreans were denied, alienated, and not assimilated with the Japanese.

Especially, the Japanese Empire achieved the freedom to exploit and dictate the Korean laborers through the brutal working environment. Like this, the literature clearly portrays how Korean laborers are "othered" by highlighting the difference and the Japanese Empire recognized the labor force of the forced Korean workers as exploitative objects and possessions of imperialistic forces. Takiji compares and contrast Korean and Japanese laborers in order to accentuate the process of othering toward Korean. Korean laborers are portrayed as rejected beings through the narrator. Furthermore, the duality of inclusion and exclusion, and coercion of the colonizer, and the consent of the colony is depict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Japanese laborers. Korean laborers as "others" was witnessed through Takiji's literary world manifesting the reality of Korean laborers who were othered through colonial ethnic discrimination.